

온코네티라퓨틱스, 신약매출 확보하고 IPO 도전

자규보정, 제37호 국산 신약 허가 총 21개국과 기술수출 계약 맺어
“자체자본으로 연구개발 지속 가능 독자적 신약허가 이뤄낸 역량 갖춰”
네수파립 등 차세대 파이프라인 확보



2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준 온코네티라퓨틱스 대표이사가 기업 설명을 발표하고 있다. /온코네티라퓨틱스

온코네티라퓨틱스가 신약 개발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해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점으로 코스닥에 긍정적인 신뢰를 주는 친시장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이달 코스닥 입성을 앞두고 있다. 온코네티라퓨틱스가 코스닥에 최종 상장되면 기술특례상장 기업 가운데, 신약 허가에 이어 해당 신약매출을 확보한 상태로 상장되는 첫 사례가 된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지난 2020년 5월 제일약품의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로 설립됐다. 이후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규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시트르산염)’을 제37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자규보정은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억제제(P-CAB) 계열 약물로 지난 10

금을 수령했다. 이어 올해 5월과 9월에는 각각 인도, 멕시코 현지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현재 자규보정이 기술수출로 진출한 국가는 총 21개국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준 온코네티라퓨틱스 대표이사는 “높은 곳을 추구하되 현실을 직시하며 나아가자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온코네티라퓨틱스만의 장점을 소개했다.

김준 대표이사는 “첫 번째로 온코네티라퓨틱스가 높은 곳을 추구하는 바탕에는 신약 상업화로 거둔 풍부한 자금력이 성장 기반으로 있다”며 “자규보정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향후 외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 자본’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연구 초기 단계부터 임상 2상과 3상까지 진행하며 독자적으로 신약 허가를 이뤄낸 독자적인 역량을 갖췄다”며 “신약 파이프라인을 국외로 내보내지 않고 국내에서만은 우리 힘으로 신약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처럼 신약 상품화 성공에 집중하는 것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임상 단계를 줄여 품목허가를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하도록 해 기

술수출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준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또 온코네티라퓨틱스는 후속 신약 후보물질로 파프-탄키라제 이중 저해 표적항암제 ‘네수파립’을 개발하는 등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완성형 기술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네수파립 개발을 위한 임상은 현재 책정임과 자궁내막암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준 대표이사는 “신약 후보물질인 ‘네수파립’의 미래 추정 수익은 이번 기업공개에서 기업 가치를 측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상장 후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공모가 산정을 통해 시장에서 네수파립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많은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55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며 공모 희망가 범위는 단가 기준,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 총 공모금액은 248억원에서 279억원이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요예측은 12월 3일까지 진행된 후, 같은 달 9일과 10일 양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이 진행된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퍼펙팅 제품군 리뉴얼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설화수가 ‘퍼펙팅 트윈케어 이크’와 ‘퍼펙팅 스킨커버’를 재단장해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두 제품에는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스킨케어링 메이크업’ 기술력이 집약됐다. 설화수 대표 메이크업 제품인 만큼, 커버력과 지속력이 특징이라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퍼펙팅 트윈케어 이크는 기미, 잡티, 모공과 주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삼중 커버 파우더를 함유한다. 이 성분은 피부 친화력이 높아 건조함 없이 메이크업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퍼펙팅 스킨커버는 크림 제형의 파운데이션이다. 매화를 활용한 향산화 성분을 비롯해 설화수 독자 성분인 ‘자음단’, 치마버섯 유래 베타글루칸 성분까지 한 데 담아 보습력까지 갖췄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제품은 완성도 있는 커버 메이크업과 함께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원생’ 히알루로닉 스쿠알란 세럼·크림 신제품 선보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은 자회사인 원생에서 ‘히알루로닉 스쿠알란’ 제품군 2종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수분에 오일 보습막이 더해진 이중 제형인 ‘세럼’과 젤 형태인 ‘크림’으로 출시됐다.

애경산업에 따르면 두 제품 모두 히알루론산과 스쿠알란을 핵심 성분으로 함유해 피부 보습 기능을 갖췄다. 피부 속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피부 밖을 관리해 피부 유수분 균형까지 맞춰준다.

/이청하 기자

골든블루 2030 소비층 겨냥 스마트오더 판매 진행

K-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골든블루가 ‘골든블루 쿼츠(GoldenBlue Quartz)’의 스마트오더 판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하이볼 등 위스키를 음용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가정에서 위스키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며 소비층 역시 젊은 세대로 확대되고 있다. 골든블루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 지난 10월 젊은 소비자층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골든블루 쿼츠’를 선보였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제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오더로 판매 채널을 확대했다. CU, 이마트24, GS25 등 주요 편의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정관장 ‘지엘프로’, 혈당조절 건기식 시장 장악력 확대

한 달 만에 2만 세트 판매 돌파
22억 매출... 시장 약 45% 차지
출시 초기 대비 신규 고객 62% ↑

정관장은 지난 10월 출시한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지엘프로)’가 한 달 만에 2만 세트 판매를 돌파하며,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3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에 따르면 혈당 조절 건기식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585억원으로 월 매출액 환산 시 49억원 정도다. 정관장의 ‘GLPro’는 한



GLPro 더블컷 /KGC인삼공사

달 만에 2만 세트 판매로 22억원 매출을 달성했는데, 이는 혈당 조절 건기식 시장 약 4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GLPro’는 새롭게 기능성을 인정받은 정관장 홍삼(KGC05pg)을 주원료로 혈당 조절 건기식 시장을 한 단계 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 기존 혈당 조절 건기식은 ‘구아바잎 추출물’ 등 고시형 원료가 대부분으로 약 88%, 그리고 ‘HAC01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개별인정형 원료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정관장은 신규 고객이 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GLPro’ 출시 초기(10일차) 대비 한 달 매출의 신규 고객 비율은 약 62% 증가했다. 기존 정관장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도 ‘GLPro’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GLPro’는 정관장 홍삼을 주원료로 A세대(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니어 연

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는 혈당 집중 케어 제품 ‘GLPro 코어’와 혈당과 동시에 체지방까지 케어할 수 있어 2030에게 인기 있는 ‘GLPro 더블컷’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KGC인삼공사는 12주 인체시험결과 정관장 홍삼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감소, 그리고 GLP-1(혈당 조절 및 식욕 억제 관련 호르몬) 증가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및 당대사를 조절하는 등 6가지 혈당 바이오파커의 유의적 개선을 확인했고 지난 8월 식약처로부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종근당 ‘브레이닝 캠페인’, 디지털광고 대상

제2회 韓 공공브랜드 대상

종근당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송파구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디지털광고 부문에서 브레이닝 캠페인으로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종근당은 올해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에서 ‘브레이닝 캠페인’을 펼치며 기억력 저하를 겪는 현대인들에게 인지능력 개선의 중요성을 알렸다.

종근당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와 일상 속 기억력 관리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해당 캠페인 주제는 ‘중요한 당신을 위한 기억력 감퇴 솔루션’으로 브레이닝캡슐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종근당의 브레이닝캡슐은 생약복합성분의 일반의약품으로, 인삼40%에 탄올 건조엑스 100mg과 은행엽건조엑스 60mg를 함유한다.

종근당에 따르면 브레이닝캡슐은 임상시험을 통해 집중력 및 주의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을 개선하는 효능을 입증했고, 말초동맥 순환장애 증상 개선에도 효과를 나타냈다. /이청하 기자

JW중외제약, 기존 PPI 약물 단점 개선

(양성자 펌프 억제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라베칸듀오’ JW중외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및 위·십이지장궤양 치료 복합제 ‘라베칸듀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라베칸듀오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인 라베프라졸과 제산제인 탄산수소나트륨을 결합한 복합제다. 적응증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위식도역류질환의 증상 완화,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 요법 등이다.

라베칸듀오는 기존 PPI 약물의 단점으로 알려진 느린 약효 발현 속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복용 후 약 30분 만에 증상을 완화한다. 기존 PPI 치료제의 경우 체내에서 흡수되기까지 2~4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이러한 개선점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성분으로 쓰이는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P-CAB)’ 계열 치료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또 이 제품은 탄산수소나트륨을 비롯해 보조 제산제인 수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등을 조합해 위산에 의한 라베프라졸 분해를 방지한다. /이청하 기자